

무주다움 완성 군민행복 실현 박차 상하수도 분야 군민지원 추진

민선 8기 출범 100일... 황인홍 군수 "군민이 주인인 무주 만들어 갈 것"



민선 8기 무주 군수 취임 100일을 나흘 앞둔 지난 4일 황인홍 군수(사진)는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군민행복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 무주군정을 운영하고 있는 황인홍 군수는 군정의 연속성을 토대로 무주다움과 태권도시, 섬김행정, 군민안전, 미래세대의 완성, 섬민행복의 연속, 군민이 주인이 되는 무주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군정 5대 지표(풍요로운 문화관광,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받는 섬김행정)를 바탕으로 100개 세부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구천동 경관 보행로 조성 등 △무주관광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공약을 비롯해 대한민국 일등을 향한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반딧불종 합스포르타운 조성 등 △스포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상, 적상산성 종합정비 등 △품격 있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또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태권도 관련 사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 등을 확산·지원해 △농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해 △지

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해 △일상회복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보건 의료인 전문 진료과를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어르신 이·미용비 확대,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등 △섬김행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센터 조성,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시행 등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목재친화도시 작은 놀이터 은퇴자마을 산림경영단지 조성 등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인구유출을 막고 열린 군수실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년 간담회 개최 등은 △주민 소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러한 공약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 배심원제를 시행(10~12월)할 방침으로 군민 검증을 거친 공약(사업)은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서 B등급을 받아 168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공모에 선정돼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스마트 팜 유리온실과 저온 저장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19만 3천여 명

방문)와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31개국 110편 영화 상영, 방문객 3만여 명)의 성공적 개최 농기계혁신 시범사용 공모(국비 1억3천만 원 확보)에 선정된 것 등을 민선 8기 출범 100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세외수입 운영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세외수입 부과액 22억 중 199억 징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 원 정리)됐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해 국비 265억 원을 확보(5년간 총 사업비 404억 원 투입)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 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계획)했으며 산자부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천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적상면 치북마을 삼매짜기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인정)고시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100일은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군민행복을 실현할 준비의 시간이었다"며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안전을 더하고 소통을 채워 건강한 무주를 일구고 군민 여러분이 주인인 무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혁신적인 정책·속도감 있는 현안사업 추진” 강조

장수군, 청원초회·혁신군정상 시상

장수군은 4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청원 초회를 실시하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창출한 3개 부서를 대상으로 3분기 장수군 혁신군정상을 시상했다.

청원 초회에서 최 군수는 "민선 8기가 시작된 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군정 철학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각자의 소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년도 국가사업 발굴에도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항상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주인들을 위해 군 발전을 위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며 "청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와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청원 초회에서는 군민 체감도가 높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한 부서에 대한 혁신군정상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부서에는 장수군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업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한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우수부서에는 사업비 154억원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과 번안물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번안면이 수상했다.

‘혁신군정상’ 수상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성과 가점이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 지역 광역 상수도 확대 공급 등 정책 마련·방안 모색

진안군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물가상승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장단기적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첫째, 진안군 전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확대 공급이다. 최근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추가용수공급량(4,500ml/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안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송수관로 L=32km에 대한 경제성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둘째, 섬진강 지역 진안군민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다.

향후 진안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 가 공급될 경우 섬진강 수계지역(백운, 마령, 성수, 부귀면 일부)에는 물이용부담금(170원)이 면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강분류와 댐 지역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우리지역 섬진강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진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화를 위해 유수를 75% 이상 달성·유지·관리다. 높은 유수율과 상수도 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도 급수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넷째, 섬진강·금강 유역 주변마을 특히 용담호 주변 소규모 마을의 공공 하수처리를 위해 관련 지역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군민지원정책으로는 첫째,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군민 부담을 최소화다. 진안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은 20.5%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요금상승이 불가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물 복지 차원에서 요금동결을 유지하고자 한다.

둘째, 누수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한 누수 신속 복구로 유수율 제고 운동에 전 군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수율을 높이면 정수 비용이 절감되어 간접적으로 군민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검침 대신 원격으로 검침함에 따라 날씨, 수용가 사정 등 돌발상황에서도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든 검침이 가능하고 실시간 수도 사용량 파악으로 누수 및 수도계량기 이상 등 민원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급수공사비 산정방법을 실액제에서 정책제로 개선해 일정거리내에서는 정책 공사비를 책정 부과함으로써 거리별 부과금에 따른 민원해소와 공사비에 대한 군민 부담을 완화해 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진안 공공하수처리 구역의 확대를 통한 증설과 일부처리시설 인근 소규모마을까지 처리구역 확대 방안 마련이다.

전춘성 군수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상하수도 분야에서 장단기적, 직간접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제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장수종합경기장, 장수가야온동장, 장계국민 체육공원 운동장 3곳에서 '제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군 체육회 주최하고 장수군 축구협회와 한국유소년축구클럽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U-8(12학년부) 8개 팀, U-9(3학년부) 14개 팀, U-10(4학년부) 9개 팀, U-11(5학년부) 11개 팀, U-12(6학년부) 8개 팀이 참가해 총 50개 팀의 선수들과 관계자, 가족들 포함 약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과 둘째날은 학년별로 조별 예선전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토너먼트를 통해 승부를 가렸다. 그 결과 U-8 JSFC팀이, U-9와 U-10 전북현대 유소년팀이, U-11 FS오산팀이, U-12 성한수FC팀이 우승컵을 들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다슬기 치패 300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4일 읍·면 하천 및 공공용수면 12개소에 다슬기 치패 약 30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수산종묘 관리사업(치패방류)은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북도 수산정책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넙골 물 밑에 무리 지어 서식하는 다슬기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며, 반딧불이 유충의 중요한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고 있다.

다슬기는 단백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간 보호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 및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으며, 다른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슘 비율이 높아 그야말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안군은 올해 다슬기 방류행사를 마지막으로 내수면 방류사업을 종료한다. 뱀장어를 비롯하여 붕어, 쏘가리, 뚝자개, 대농갱이, 다슬기 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였고,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안군 수산업 발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한옥마을서 '진안홍삼축제' 게릴라 홍보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 게릴라 홍보를 실시했다.

진안군과 추진위원회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던 홍삼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됨에 따라 대내외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게릴라 홍보에는 전춘성 군수를 포함해 군 문화체육과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여해 전주한옥마을에서 거리홍보와 진안군 캐릭터 '뽕팡이를 이겨라' 현장 이벤트와 SNS 이벤트를 실시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10월 7일 진안



고원시장에서 진행되는 홍삼노래자랑을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홍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로 3일간 펼쳐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